



6월 3일(화) 제21대 대통령선거 용봉동 사전투표소

사전투표기간 5. 29.(목) ~ 5. 30.(금)
매일 오전 6시 ~ 오후 6시
투표장소 전남대학교 용지관 컨벤션홀(1층, 전시실)

제21대 대통령선거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컨벤션홀 '용봉동사전투표소' 앞에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. /뉴시스

“바른나라 기초공사” “내란종식”... ‘오픈런’ 광주 사전투표

투표소마다 출근길 직장인 등 시민들 소중한 한표

“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일궈 세
울 일꾼 뽑아야죠.”

제21대 대통령 선거(대선) 사전투표 첫
날인 29일 광주 지역 사전투표소에 참일
꾼을 뽑으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
고 있다.

광주 동구 지원2동 행정복지센터 내 사
전투표소 앞은 새벽 어스름을 뚫고 때 이
른 출근길에 나선 직장인 십수명이 투표
시작 선언을 기다리고 있었다.

이날 오전 6시 투표 시작과 동시에 선
거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투표소에 들어
섰다. 신원 확인을 마치고 투표용지를 받
아든 시민들은 짧은 고민에 빠지거나 후
보 기호를 거듭 확인한 뒤 기표소로 발을
옮겼다.

시종일관 굳어있던 유권자들의 표정은
기표소를 가리고 있던 흰 장막이 걷히면
서 환한 미소로 바뀌었다.

투표소를 나온 시민들은 “청년들이 잘
사는 세상” “먹고 살기 편한 세상” 등 저마
다 바라는 세상에 대한 열망을 한마디씩
주고받기도 했다.

이날 지원2동 사전투표소에서 가장 먼
저 투표를 마친 전모(69)씨는 “평소 국가
는 국민과 정치인 모두가 합심해 바꾸는
것이라 생각해왔다. 모두가 만든 나라를
대통령 한명이 고작 3년만에 망친 모습에
크게 실망했다”며 “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
권 심판이 아닌 망가진 나라를 바로 세우
는 기초 공사”라고 목소리를 높였다.

지역 예술인으로서 12·3계엄의 부당함
에 목소리를 보태온 부부도 함께 투표에
나섰다.

장호준(57) 풍물연희예술단 광대 대표
는 “이번 대선은 12·3계엄부터 이어져 온
내란 상황에 대한 종식 선언 절차”라며

“45년 전 5월18일 광주에서의 열망이 오
늘로 이어진 만큼 반드시 바라는 세상이
오길 희망한다”고 말했다.

광주 서구 쌍촌동 쌍촌종합복지관에 차
려진 상무2동 사전투표소 입구 역시 투표
시작 전부터 유권자 40여명이 줄을 서 있
었다.

투표소에는 출근 전 헬레벌떡 뛰어온
직장인, 아침 운동 가기 전 투표를 찾은
어르신, 휠체어를 탄 노모와 함께 온 아들
등 다양한 유권자들이 모였지만 참 일꾼
을 뽑으려는 마음 만은 같았다.

유권자들은 이른 아침 피곤한 기색이
역력했지만 설렘 반, 긴장 반 속 투표 순서
를 기다렸다.

1시간 전부터 투표소 앞에 서 있던 한
70대 시민은 “일꾼 뽑는 중요한 날인데 먼
저 와 있어야제”라며 “서민들 평안하게 잘
살게 해주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”
고 소망했다. 이른 아침부터 준비해 투표
소에 도착한 한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하
는 것을 깜빡해 “내일 오겠다”며 아쉬운
발길을 돌리기도 했다.

오전 6시 정각, 차레대로 입장한 시민들
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소중한 한 표를
행사했다.

투표를 마친 한 시민은 투표소 입구에서
촬영한 인증 사진을 모바일 메신저 가
족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기도 했다.

투표를 마친 쌍촌동 주민 김모(56)씨는
“아빠·숙이 다 시원해브네”라며 흥분한
표정을 지었다.

김씨는 “요즘 같은 민주시대에 계엄으
로 얼마나 국민들 가슴이 벌렁벌렁 했느
냐. 경제도 파탄이 났다. 국민 만을 바라보
고 일하는 일꾼이 뽑히길 바란다”고 강조
했다.

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컨벤션홀 앞 용
봉동 사전투표소 역시 투표 시작 30분전
부터 모여든 유권자들로 붐볐다.

운동복 차림으로 런닝을 뛰다 대기줄에
합류한 시민부터 삼삼오오 짝을 이뤄 산
책을 하던 일행까지 더해지면서 금세 100
명이 훌쩍 넘었다.

고령의 할아버지를 모시고 투표소를
찾은 20대 손주부터 이들의 생애 첫 투표
를 기념하기 위해 일찍이 함께 나선 가족,
경건한 마음으로 목욕재계까지 하고 왔다
는 모녀까지 나라를 이끌 새 지도자를 선
출하기 위해 이른 아침 발걸음을 옮겼다.

투표를 마친 한 시민은 흥분한 듯 투표
소를 빠져나오며 선거사무원과 다른
시민들에게 연신 “모두 수고하십니다”
라고 응원을 보내며 함박 웃음을 지어보
였다. 투표소 앞은 투표를 마친 시민들이
인증샷을 촬영하는 ‘포토존’이 됐다.

고등학생 아들의 첫 투표를 기념해 온
가족이 함께 투표장을 찾은 신모(58)씨는
“엄마·아빠가 아들의 첫 투표권 행사를 응
원하고 싶었다. 너무 일찍 일어난 아들이
투덜거리기는 하지만 내심 뿌듯하다. 새
로운 대통령은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,
침체된 경제를 살려내주길 바란다”고 밝
혔다.

출근 전 투표를 마친 김모(57)씨는 “이
번 대선은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.
비상 계엄과 탄핵으로 혼란에 빠진 정세
를 바로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
선거”라며 “정신적이고 상식적인 국정 운
영을 펼쳐주길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대학생 김모(22·여)씨는 “사상 초유의
비상계엄 사태로 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
다. 위기와 혼란에 빠진 나라를 하루빨리
정상대로 돌려주길 바란다”며 “다시는 민

주주의 가치가 위협받지 않는 새로운 전
환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”고 했다.

이번 대선 사전투표는 29~30일 오전 6
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. 지역 내
사전투표소는 광주 96곳, 전남 298곳에 설
치됐다. 선거인 수는 광주가 119만4191명,
전남이 155만8464명이다. /박도일 기자



권영국(왼쪽 세번째) 민주노동당 대선후보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관계자, 전국금속노동조합
금호타이어 지회 간부들이 29일 광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. /뉴시스

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안갯속

권영국 대선 후보, 금호타이어 노사와 간담회

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이 대형 화
재에 따른 무기한 생산 중단으로 이전
계획 논의 역시 불확실해졌다고 판단
하고 있다.

금호타이어는 29일 오후 민주노동
당 권영국 제21대 대통령 선거(대선)
후보가 참석한 노사 간담회를 열었다.

김명선 금호타이어 부사장은 이날
권 후보가 공장 이전 가능성에 대해
문자 “그동안 공장 이전이 어려웠던
이유는 광주공장을 가동하면서 이전
절차를 밟아야 했기 때문”이라고 말
했다. 화재가 발생하기 전 상황을 가
정해도 “(이전까지) 약 48개월이 걸릴
것이라고 사측은 판단하고 있었다”는
설명이다.

김 부사장은 “광주공장을 가동하지
않으면 연간 약 1150만개의 타이어를
생산하지 못한다. 때문에 시에 협조를
요청해 (광주) 공장을 가동하면서 (합
평부지에) 공장을 짓고 점차 옮겨가는

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 이번 화재가
났다”고 설명했다.

김 부사장은 “공장 이전의 배경에
는 물류 확대, 신규격 타이어 제조 설
비 마련 등이 있다”며 “새 공간에서
신설비·신물류 시스템을 갖추자는 취
지였다”고 해명했다.

그는 “공장 노후화로 인한 화재가
아니냐”는 권 후보의 질문엔 “관계가
없는 것으로 추정된다”고 답했다.

이어 “광주공장에서도 주기적으로
설비투자를 해 세대를 교체해왔다”며
“오래된 설비도 있지만 최신 설비도
있기 때문에 (공장 노후화)를 화재와
연결시키는 것은 앞서가는 것 같다”고
말했다. 이날 간담회에는 권 후보와
김 부사장, 성용태 금호타이어 노사협
력담당 상무, 정준현 전국금속노동조
합(금속노조) 광주지부장, 황용필 금
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장 등이 참석
했다. (2면에 계속) /이승원 기자

근로자에 투표 보장... 안하면 과태료 1000만원

광주경총, 807곳 회원사에 투표시간 보장 안내

“근로자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
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가 부과됩니다.”

광주경총(광주경총)은 807
개 회원사에 제21대 대통령 선거(대선)
사전투표 기간(29~30일) 근로자들에게
투표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안내
했다.

앞서 광주경총은 지난 23일 홀리데

이인 광주호텔 컨벤션홀에서 임원 및
회원사 대표, 고광안 광주시 행정부시
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 투표시
간 보장 캠페인 협약식을 가졌다.

광주경총에 따르면 대선은 근로자
의 투표시간이 법으로 보장돼 있다. 근
로자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
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
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.

고용주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이
를 보장해 줘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
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
사실을 인터넷 누리집, 사보, 사내 게시
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. 근로자의 투
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
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
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“사전투표
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. 선거
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정
된 투표소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 한표
를 행사하면 된다”고 말했다.

/전광훈 기자

빛과 바람이 기억하는
500년의 흥겨움

함께 만드는 영광
같이 누리는 주민

법성포민노래제

2025. 5.29.(목) ~ 6.1.(일)
단오마당(단오제전수교육관)
축제마당(법성포뉴타운문화광장)

주최/주관 (사)법성포단오제보존회 /법성포단오제제전위원회 후원 국가유산청 전라남도 영광군의회
한국수력원자력㈜ KH 영광수원염 광비농협